

중국, Shell과 상하이 석유 개발!

CNOOC-Sinopec, 천연가스 및 원유 탐사 계약 ... 외자합작 중 최대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하이(上海)와 저장(浙江)성 연안인 시후(西湖) 대륙붕 자원 개발을 위해 외국 정유기업들과 공동 개발에 나섰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 Sinopec 등 중국 양대 석유 개발 기업은 8월19일 베이징(北京)에서 Shell 그룹, 미국 캘리포니아의 Union Oil과 시후 대륙붕 5개 지역의 석유 자원 탐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최근 들어 해양자원 탐사와 관련해 체결한 외자합작 계약 중 최대이고, 중국 측이 각각 30%, 외국 회사 측이 각각 20%씩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탐사·개발 계약 지역은 모두 2만2000km²의 광대한 5대 지구이며, 이 가운데 춘샤오(春曉) 지구에만 천연가스 652억m³, 원유 1000만-2000만배럴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륙붕 석유·가스 탐사 지구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에 인접해 있어 개발이 시작되면 상하이 경제 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21>